

“국토사랑 글과 그림으로”

‘길에서 쓴 그림일기’ 펴내는 이호신씨

잠깐이라도 세속의 귀를 씻어내고 계곡의 맑은 소리가 들리는가. 어둠을 밀쳐내고 흐르는 계곡물 또한 화개에서 삼진강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 물에 몸을 씻고 문지방을 닦아 놓으려는데 갑자기 잠이 되고 말았다. 산간의 불이 꺼져서 처음에는 열미 감 잡았으나 차츰 산봉에 눈길 가고 용마루와 차마를 살피니 그 동산의 아름다움이 밀물처럼 다가왔다... (“흐느끼며 꿈꾸는 삼진강을 따라서” 중)

십여년간 전국을 발로 뛰며 산하와 이웃의 삶과 문화유산의 숨결을 가슴으로 안으며 화폭에 담은 한국화가 이호신씨(40)가 그림과 함께 떠나는 국토7행산문집 《길에서 쓴 그림일기》를 내달중 펴낸다(현암사 펴). 3년에 걸쳐 《환경운동》지에 “그림과 국토여행” “길에서 산하에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을 한권의 그림일기로 묶은 것. 이씨는 이와함께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을 찾아 그 모습을 그리고 깨우침이 담긴 말씀을 글로 담은 ‘세기말 선지식과의 만남’이라는 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전국 곳곳 고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묘사한 ‘가람의 풍광과 진경’ 시리즈도 진행중이다.

《길에서 쓴 그림일기》에는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노래 △반도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 등을 주제로 28편의 글과 관련된 그림 50여점이 실렸다. 여기에는 호느끼는 삼진강을 따라 나타난 생계사, 성철스님의 대비 모습을 묘사한 대비장

가는길, 만인의 노래 찬불 찬담 운주사, 원용의 세계 부처사, 경주

“전국 산하 다니면서 만났던 감동 담았어요”
“선지식과의 만남” ‘가람의 풍광과 진경’ 도 준비

남산 등 전국 유명 고찰과 산하를 찾아다니며 만났던 사람, 문화유적, 풍광, 식물과 곤충 등 우리 문화의 원류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속깊은 사랑을 한국화와 유려한 문체에 담았다.

“만남이 더할수록 상의상존(相依相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 진실되고 소박한 삶을 발견하게 되고 경건한 감동을 받습니다.” “세기말 선지식과의 만남”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선지식을 글과 그림으로 묘사해 책으로 엮은 작업이다. 단순한 친견이기에 보다 감동과 탐욕이 한층 가속되는 현대에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그리는 스님들의 모습은 엄숙한 근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 속의 모습이다. 선지식을 찾아가



◇이호신작 “기린산 생계사 전경”

불심시심 <69>

마음 씻는 소리

休言潭水本無情 못물 정없다 말하지 마소
(휴언담수본무정)
厥性由來得一清 본성은 원래 하나의 맑음
(굴성유래득일청)
最愛寥寥明月夜 사랑스럽다 요요히 밝은 달밤
(최애요요명월야)
隔窓時送洗心聲 창 사이로 때로 보내는 마음 씻는 소리
(격창시송세심성)

위 시는 무용대사가 삼연 김창홍(金昌翕)에게 준 시이다. 삼연은 당시 사대부로서 명성이 높던 사람이다. 당시에도 고관대직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높은 벼슬 아치면서 대표적 선비에게 주는 시이지만, 시의 내용은 은연중 불교적 법리의 일상성을 전하고 있다.

물은 맑음이 그 자성 본체이다. 맑고 평정하다 함이 유동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원래의 본성이요, 이러한 본성이 있기에 고요한 밤의 물소리는 정려한 자의 마음을 씻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 응용의 나름에 따라서는 정적인 맑음이 동적인 소리로 변하여 그 맑음의 본성에서 내마음의 맑음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한시 정려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산승도 이러한 지기를 만나면, 저 물이 동적인 소리로 변하여 맑음을 전하듯이 승속을 뛰어넘어 산사를 찾아온 세속의 선비의 마음을 맑힐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처지의 다름에서 간격

을 두고 사는 터이기도 하지만, 희심의 한 편의 시가 마음에 있고, 거기에 따라 두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 것이다. 비록 심오한 교리적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투영된 두사람에게는 고리 이상의 마음의 교분이 나타나 있다.

끝 구의, 창에 가려 막혔다는 격창이라는 용어가 갖는 상징성도 재미가 있다. 어쩌면 서로 가리운 처지의 막힘으로 볼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들려오는 물의 자성 맑음이든 청정로 이어진 것이다.

두 사람의 정의를 깨끗하게 표현하면서도, 저 속세적 의미로 끌리지 않고, 오�히려 자성으로 요리한 점에서, 스님의 기개를 엿볼 수 있어 아름답다. 역시 일상을 선으로 합류하는 스님들의 자세라 여겨 더욱 머리 숙여진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12월 1~10일 대구·17~21일 광주서 ‘대瓦 발우전’ 여는 김용문씨

“대흥사에서 서산대사가 쓰시던 옥(玉)발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왕의 선물인 것 같았는데 보는 순간 발우란 것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스님들과 경생을 함께 하는 수행의 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어가 김용문씨(42)가 오는 12월 1~10일 대구 예술마당(053-427-8141), 12월 17~21일 광주 무등일보 광주방송사옥내 라인문화관(062-



“불교전통 살린 색과 선 응용 도자기로 발우 만들었어요”

672-1112)에서 각각 대와(大瓦)발우전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목(木)발우지만(사분률(四分律))에 의하면 발우에는 철발(鐵鉢) 이발(泥鉢) 금발(金鉢) 은발(銀鉢) 유리발 등발(銅鉢) 석발(石鉢) 등이 있으며 목발은 이교도의 기물이라 해서 금기한다.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발우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색과 선을 응용한 와발우전을 마련한 김용문씨가 전시회에 선보이는 어시발우 사합발우 등은 분청과 옹기의 색감과 질감을 응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이나 초가집의 선을 연상케 하는 부

드러운 선과 형태를 넘겨나 글이 표출하게 현대적 기법을 응용하고 연꽃이나 새 꽃 물고기 등 자연에서 따온 무늬를 넣어 전통의 질그릇에서 느껴지는 멋과 함께 현대적 세련미가 돋보인다는 평을 들었다.

“스님들이 쓰는 식기지만 음식쓰레기 문제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발우를 생활용기화해 ‘검소하면서도 청정한 발우공양장’을 되살렸으면 합니다.”

처음 가진 지난 10월 서울 발우전시회에 생각보다 너무나 큰 호응이 있어 기뻐했다. 김용문씨는 지난 89년에는 용기로 만든 공양기(供養器)를 개최한 바 있다. (속)

만해사상선양회 만해상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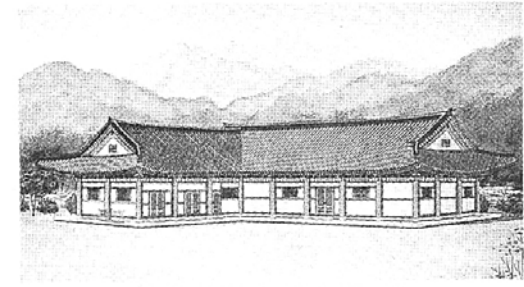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스님의 정신을 후손에 전하기 위한 ‘만해상’이 제정됐다. 만해사상실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홍)는 지난 10일 백담사에서 운영위원회 열고 총상금 4천만원 규모의 국내의적으로 권위있는 상으로 만해상을 새로 제정하고, 내년 3월 1일 삼일절을 기해 첫 시상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 상금 2천만원의 대상인 본상은 만해스님의 불교사상 민족정신 예술혼을 선양하는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각 분야상으로 학술상 예술상 포교상 실천상 등으로 나뉘어 5백만원씩 시상한다. 심사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쌓은 시간의 성과와 노력을 감안해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만해사상실현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백담사에서 만해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 만해유적과 한용운스님이 주축하며 참선과 문학의 열정을 꽃피웠던 문화유적지 관음전도 복원해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선양회는 또한 매달월 김시습과 한용운스님이 주축하며 참선과 문학의 열정을 꽃피웠던 문화유적지 관음전도 복원해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건립중인 백담사 만해기념관 조감도.



◇건립중인 백담사 만해기념관 조감도.

‘장애인 재할 음악회’ 열린다

‘벨로스님’으로 잘 알려진 법철스님(대보사)이 주체가 되어 장애인의 재할을 위한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연다. 오는 29일 저녁 7시30분부터 여의도 상용증권빌딩 300층에서 열리는 ‘더불어 사는 음악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독주와 목가수공연, 관악 5중주합 등으로 펼쳐진다. 수익금의 일부가 보정기금 장애인의 재할을 후원하는데 쓰여진다. (02)373-6511

용인대에 불교회화 대학원

예술 체육 전문대학인 용인대에 불교회화전공 대학원과정 개설, 내년 3월 개강을 앞두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회화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화 세계화하여 우리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되는 불교회화전공 대학원은 실기 중심의 전문

문화 소식

과정이다. (0335)30-2790

백순실씨 ‘동다송’ 연작展
차를 노래하는 동양화가 백순실씨가 오는 28일까지 신사동 표화당에서 ‘동다송-생명의 번주곡’을 주제로 초대전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호의스님의 ‘동다송’을 주제로 대작 15점이 출품됐다. (02)543-7337

30일 부산천불음악합창제
부산지역 사찰합창단을 지도해온 이순희씨가 주관하는 천불음악합창제가 오는 30일 저녁 6시30분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가팀은 관음사 대각사 동명불원 서운암 약수법단 부산불교연합회 가곡가요부르거회 등 8개팀.

좋은 집이름 보급 ‘당호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광주 금호문화회관에서 불교문화대학 기금마련을 위한 당호전(堂號展)을 갖는다. 좋은 집이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당호전에는 불모 석경스님 전각가 안광석승 은조 정명석 승 등의 글씨로 ‘나연원(茶淵院)’ ‘학고대(學高臺)’ ‘영불각(迎佛閣)’ 등 50여점의 당호가 전시될 예정이다. (062)676-2500

박대성씨 경주주제 묵화展
천년 고도 경주를 주제로 한 박대성 묵화전이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관훈동 가나회관에서 열린다. 서예기법의 운필 효과를 최대한 살려 불국사전경을 한 화폭에 담은 ‘전년배상’, 칠불암을 담은 ‘칠불명’, 불국사 가람과 석굴암을 재구성한 ‘불불합굴’ 등 대작 37점이 소개된다.



전통문화계승 팔관대제 성료

삼국시대부터 국가의식으로 치루던 불교전통 문화의식 팔관대제가 태고종 총무원 주최로 지난 18일 대전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94년부터 매년 열리는 팔관대제는 1부 법요식 2부 팔관대제 3부 영산재 시현 및 마징구기 4부 관동법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덕암스님(태고종 승정)에 의해 8관계상(八關戒相)이 설행되고 전대종의 108참회와 서원문 봉독이 있었다.

현대불교

생 활 광 고

본 원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뵈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찬, 소식
● 저가홍보 ● 인쇄
● 각종행사 ● 신상홍보개등

문의
(02)737-8881(공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인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 大明堂 (주황터) 急賣

위치: 충북 단양 적성면 錦山 최고요지
* 배포1C에 소 15분 관광지정지, 버스전입지(황궁터 형국)
* 가격: 평당 5만원(더는 명물, 같은 공동묘지가격)
* 기타: 동남향, 남한강, 도담삼봉아래 경치 최고지

연락처: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小白山 령통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 및 휴양하실 명분을 모십니다.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속식 계동 및 1인1실·기름보일러

연락처: (0444)22-1094 22-0347

모십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 노년·부진 스님을 초빙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

대한불교 화계사
조 계 종

연락처: 902-2663 903-3361

20년 전통의 모범회사
여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전화 11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찾아가는 명터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은미 합장

■ 초혼: 의사, 박사, 약사, 판·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 재혼: 전문
■ 엘리트 결혼·중매
■ 책임선혼

문의 | 주간 (02)783-1777
전화 | 야간 (0343)47-1046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 대 불 교 신 문 사 앞
韓 國 民 俗 哲 學 研 究 所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사람: 하동수
신문을 보는 즉시 연락바랍니다.
누나 하미영

포교당 안내

● 위치: 망우 사거리 ● 평수: 30평
● 보증금: 천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천만원
● 연락처: (02)494-3929 (0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늘지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검버섯·늘어진얼굴

블로킹피부관리비밀번호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부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로 393-1
대원사

전화: (0331)262-0606

49세 男
불교도반으로 남은생 같이 하실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샌프란시스코 510-276-8845 임지수 (부재시 녹음 가능)

탁자, 달집, 범상, 문짜, 불교조각

주요불사입적
* 합선(해인사) 대적광전 범상 경상
* 의왕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짜
* 서울(백화사) 범상 수미단 용각 복천함
* 용정(삼보사) 대웅전 문짜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짜
* 충주(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범상 경사
* 마산(전진사) 대웅전 문짜 달집
* 모전(약진사) 대웅전 문짜 달집
* 단양(전진사) 대웅전수미단달집경사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문짜, 그의 다수 사찰

대진(진승)공예사

렌 드 본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 이.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전통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법당을 정밀하여 현 년을 기리 남을 정성들 다 하여 봉사하였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전도 설계사: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천불전, 단집, 선신각, 문짜
제주도 원각사: 불단, 단집, 범상등의
실악산 오세암: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천불전, 단집, 회회 등
구로동 원용사: 불단, 문짜
불교예대원: 불단, 문짜, 경각의
망우리 보문정사: 불단
안양 약수암: 불단, 단집, 천불의 다수 사찰 봉사

연락처: (0346)553-648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원진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50평 (시설 일체완비)
보증금 3000만원
시설임대 1800만원·월세 48만원
연락처: (02)245-0904
* 운영 즉시 범위 가능합니다.

스님을 모십니다

역학과 염불에 능하신 스님을 모십니다

△ 부산 중심지 포교원

연락처: (051)467-5200

포교당 안내

위치: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증가

연락처: (051)514-0331~2